

# 절절한 그리움 속 56년 갇힌 삶 “북 가족 만나게 마지막 소원”

1961년 남파간첩 체포 장기 복역 90세 서옥렬씨

부치지 못한 편지에는  
애뜻한 아내 사랑 담겨

“남북 화해 새 장 열어야”  
광주 시민단체 북송 추진

30년을 감옥살이 하고, 출소 뒤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한채 광주에서 외로이 살아가는 구순(九旬) 노인이 있다. 서옥렬(90)씨다.

그가 낸 만델라(27년)보다 더 오랜기간 감옥살이를 한 이유는 ‘남파간첩’이어서였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북한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향’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씨는 “유신시절 광복을 동원한 야만적인 전향공작에 의해 반강제로 준법서약서에 직인을 찍었다”며 “전향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는 “고독한 삶에 너무 외롭고, 처저식 생각이 뼈에 사무치게 그립고, 너무 간절하다. 북에 있는 가족과 만나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며 북한으로 송환을 간절히 바랐다.

서씨의 애뜻한 아내 사랑은 ‘부치지 못한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랑하는 여보! 내사랑! 당신 곁을 떠난지도 50년이 훌쩍 지났소. 수많은 세월 당신을 잊어본 일이 없소. 감옥에서 홀로 정적 살 때, 그리고 앞으로 생명이 다할 때



까지도 잊을 수가 없소”라며 절절한 그리움을 담았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고서 흐뭇해하던 당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당신, 지금 살아있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하늘에는 까만 몽개구름, 바람이 없는데도 서서히 북으로 북으로 흘러가는군! 이 구름에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내 편지를 실어 보내고 싶는데, 구름이 내 뜻을 받아줄지 모르겠구려?”라며 보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서씨는 끝으로 “여보! 내사랑!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각오를 해본다오. 아무 쪽쪽 건강하고 육체의 늙음을 정신으로 이겨내 통일의 그날, 7천만 겨레 모두 하나 돼 덩실덩실 춤출 때, 당신과 나 역시 부둥켜안고 마음껏 춤을 추어 봅시다”고 재회를 염원했다.

편지의 수신인은 ‘평양시 선교구역 신리

동 아들 서태길(아우 서태현, 처 강순성)’, 발신인은 ‘광주시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 서옥렬’이라고 쓰여 있다.

서씨는 1927년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경제학과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학도병으로 인민군에 편입돼 북으로 갔다. 김일성총합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교원이 됐고, 같은 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다. 1961년 8월 북한 공작원으로 고향을 방문했다가 월북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9월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복역했다.

2000년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송됐을 당시 서씨는 ‘전향 장기수’라는 이유로 송환되지 못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인도주의·인권 차원에서 서씨의 북송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6·15공동위원회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장기 구급 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준)’ 결성 기자회견을 연다.

송환추진 준비위원회는 “새 정부가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 관계도 복원시켜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장기 구급 양심수 송환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청와대·통일부에 송환 촉구 서한을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 온·오프라인 송환 청원운동도 할 예정이다. 1차 송환 목표일은 8월15일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재민에 생수 보내기

20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구청 광장에서 북구 소재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장안의 후원으로 1ℓ짜리 생수 4200병을 구입해 폭우 피해지역인 충북 청주시 수재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중학 동창 집단 괴롭힘... 피해 학생 진술서 보니

### 켈수록 점입가경... 빌고 빌어도 가혹행위 계속

오즘 세례에 폭력 사주도  
가해 학생 12명으로 늘어

광주에서 장기간 이어져온 학교폭력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남고생(광주일보 7월 20일자 6면)이 수십명의 중학교 동창들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 의심학생 중 일부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자위행위를 시키는가 하면, 모텔에서 몸에 오줌을 붓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왔다. 특히 가해 의심학생들의 협박에 못 이겨 같은 중학교 후배를 때렸다가 가해자로 내몰려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징계처분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광주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피해 학생 어머니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 들어 지난해 말까지 2년여간 중학교 동창인 A군 등 12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이는 애초 광주경찰청이 조사한 내용보다 피해건수는 물론 가해자 수도 많다. 이들 중엔 폭력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방관만 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의심학생들의 괴롭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A군은 지난해 24일 광주시 광산구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자는 피해학생의 몸에 오줌을 누 뒤 화장실에 데려가 1시간 동안 찬물을 끼얹으며 괴롭혔다.

또 라이터로 앞 머리카락을 태우고 다듬어주겠다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짧게 잘라 삭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학생은 당시 울부짖으며 “그만하라”고 빌었지만, 가혹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중순에 A군 등 2명은 광산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3학년 후배를 불러내 얼굴 등을 때린 뒤 피해자에게 “너도 한 번 때려봐라. 안 그러면 내가(피해자가) 대신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학생은 맞는 것이 두려워 후배 학생의 뺨을 세 차례 정도 때렸고 학교폭력 신고자 접수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당시 ‘약하게 뺨을 때렸다’는 얘기를 아들이 말했다고 피해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엔 A군 등 3명이 광산구 한 놀이터 놀이기구에 피해학생을 강제로 묶은 뒤 팬티를 찢어 벗겨낸 뒤 도망갔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그동안 팬티를 10장 이상 사줬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이가 화를 내 물어볼 수 없었다”며 가슴 아파했다.

A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아파트 소화전에 2만원을 넣어라”, “담배를 사와라”라는 등 수시로 돈을 빼앗거나 심부름을 시켰다.

이 같은 행위가 새벽시간대에 주로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학교에서 부족한 잠을 채웠다는 게 피해학생 어머니의 말이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아들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감정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다”면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집안에 CCTV를 설치해놨다. 아이를 감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울먹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관급공사 비리’ 광주시 전 자문관 징역 3년

추징금 6억6000만원 선고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2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6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광주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려는 업체에 편승했다”며 “받은 금액이 많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그 폐해도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영리 추구의 책임이 피고인과 함께 돈을 준 업체에도 있고, 수수하려는 사업이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

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건설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과 알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김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6억 6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을 수수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소유권 주장 파헤친 마을도로

1년여만에 원상회복 길 열려

장흥의 한 마을도로 소유자가 수십 년 만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파헤친 마을도로(광주일보 2016년 8월 8일자 7면)가 1년여 만에 원상회복될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0일 지난해 7월 170여 세대가 사는 장흥읍 월평마을 안길 도로 50여m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할 수 없도록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친 A(66)씨에게 일방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흥지원은 “이미 54년 전에 답(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적법하게 도로를 개설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면서 “A씨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도로 구실을 못하게 파헤친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편법 시위로 일방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대형 슈퍼마켓서 벌 습격...장 보던 여성 쏘여 응급실행



○...광주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40대 여성이 발에 쏘인 뒤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여 응급실행.

○...20일 롯데슈퍼 등에 따르면 주부 황모(49)씨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롯데슈퍼 1층 의류매장에서 양말을 구입하려던 중 갑자기 날

아든 발에 깃발을 쏘인 뒤 온몸에 발진·발열·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광주 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황씨는 현재 입원 치료와 필요하다면 병원 측의 얘기를 듣고 광주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롯데슈퍼 측은 “매장 안에 발집은 없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담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상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입아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